

천리길 대장정 시작... “이 길은 불교중흥의 초석”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94명
승보총장 송광사에서 입재식
사성암까지 22km 걸으며
‘불교중흥’ 발원 첫 걸음...

한국불교를 바로잡고 승풍을 진작코자 했던 정혜결사 정신이 서린 송광사에 300여 명 사부대중이 모였다. 중생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한국 불교의 새 운동,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하기 위해 마음을 합께 모은 자리. 부처님께서 걸으신 전법과 포교의 길이 우리 땅에 살아있음을 직접 두 발로 확인하고 자기 수행과 대중 화합의 염원을 가슴에 담는 여정이 본격 시작됐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세 번째 프로젝트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1일 조계총림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입재식을 열고 부처님전에 상월선원 결사의 공덕을 전법의 빛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발원했다. 94명의 순례단을 대표해 비구 우봉스님, 비구니 지해스님, 우바새 정총래 동국대 이사, 우바이 이태경 씨는 고불문을 낭독하며 “이 길은 불교중흥의 초석이 되는 길이며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염원하는 실천의 길임을 굳게 믿겠다”고 발원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이끄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전 총무원장·봉은사 회주)은 보조국사 결사 정신을 이어 한국 불교 근간을 계승하고 있는 송광사에 감사의 의미로 장군죽비를 전달했다.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이 송광사 대중을 대표해 죽비를 건네받았으며 순례단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격려를 약속했다.

송광사 방장 현봉스님은 직접 뱀어를 내려 순례단의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현봉스님은 “출재자가 함께 길에서 걷고 길에서 지는 이 어려운 순례 여정은 신심과 원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신심과 원력을 돈독히 하는 동시에 순례단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0월1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입재식을 마친 후 423km 대장정에 나섰다. 순례단은 이날 송광사부터 전남 곡성 목사동면까지 22km를 걸었다.

김형주 기자

의 걸음걸음에 마음을 켜며 스스로를 반조하리”고 설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 대신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대자유의 길을 따라가라는 의미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큰 만큼 이날 입재식에는 종단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도 대거 참석했다.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총장 담계 유나 현목스님 등 송광사 고승대덕 스님들도 전야제부터 격려 인사를 전했으며 경기 순례에 동참의 마음을 전하고자 종단 중진 스님들도 입재식을 찾았다. 전국 국교구분사주지협의회장 경우스님을 비

롯한 14곳의 교구분사 주지 스님과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정문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등 중앙총무 기관 소임자 스님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재가자와 지역 사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입재 후 천리순례단은 송광사를 출발, 423km 대장정에 나섰다. 이슬을 맞으며 텐트에서 하룻밤을 지낸 순례단은 송광사 대웅전 앞에서 결집해 일주문을 벗어나 신흥리와 장촌리 등 약 22km 구간을 걸은 뒤 사성암에 도착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회주 자승스님을 필두로 8개 조가 한 줄로 걸으며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걷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도감 호산스님은 “어렵게 마음 낸 만큼 전원 모두 무사

히 완보하길 바랄 뿐”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된 천리순례가 회향하는 날까지 여려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광사=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힘들지만 포교 위한 품앗이”
불교중흥 특별선서화전 주목

11월2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열리는 특별선서화전 ‘새로운 인연’ 개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봉은사 회주)은 9월29일 봉은사 구생원에서 열린 특별선서화전 추진위 봉행위원장 및 추진위원장 연석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승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교 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계 단체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품앗이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만 가능하다”며 “한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의 품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걸음씩 더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선서화전 ‘새로운 인연’은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불교중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실천행은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며 전시회를 제안하고, 소장하고 있던 선서화 300점을 기증함으로써 마련됐다.

300여 출품작은 조계종 중정예하 진제법원대중사의 선필 4점을 비롯해 경봉, 월하, 청담, 석주, 월산, 원담, 고산, 지관, 성파스님 등의 선필, 석정스님의 달마도와 일원상 80여 점, 송담스님의 달마도 2점 등 수행의 깊이를 전하는 선화 등이 대표적이다. 작품은 전시에 앞서 사전 예약을 통해 판매되며, 전시 현장에서도 직접 판매가 이뤄진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통도사-불교신문 ‘화엄산림’ 선양 공동 노력

신행수기, UCC, N행시 공모
다양한 사업 ‘업무협약’ 체결

대울사인 동시에 <화엄경>의 거장인 자장스님이 창건한 영축총림 통도사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이 화엄산림(華嚴山林) 대법회 선양사업을 위해 힘을 모은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과 불교신문 사장 현범스님은 9월28일 통도사 보광전 회의실에서 ‘화엄산림 선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행수기, UCC, N행시 공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불교신문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통도사 화엄산림이 더 많은 국민과 불자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한다”면서 “화엄사상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통도사 화엄산림을 발전적으로 계



영축총림 통도사와 불교신문은 9월28일 ‘화엄산림 선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오른쪽)과 불교신문 사장 현범스님(왼쪽).

승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신문 사장 현범스님은 “지난 해에 이어 통도사와 함께 ‘화엄산림 선양’의 취지로 신행수기 공모 등의 행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세심하고 각별하게 살펴 이번 행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신행수기, 청소년 UCC, N행시 공모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통도사와 불교신문은 곧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한다. 참가자들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영축총림상(방장 스님), 금강계단상(주지 스님) 등 모두 28명을 선정하여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통도사는 신라시대 국통(國統)을 지

낸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후 역대 조사들이 <화엄경>의 진수를 전하며 중생들을 제도해왔다. 근세에 들어서는 구하스님과 경봉스님이 매년 화엄산림을 봉행하여 왔는데, 1922년 3월(음력) 구하스님의 ‘화엄대경(華嚴大經) 회향’ 사진이 공개돼 일제강점기에도 화엄산림을 봉행했음이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연 인원 수십만 명이 동참하는 등 한국불교의 새로운 신행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유튜브 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12월4일 입재식에 2022년 1월2일 회향한다.

통도사=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이천운 경남지사장 woon3212@ibulgyo.com

세계무산
출판
문화재단

문화재단

개산 1376주년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

9월 18일 (토) ~ 10월 17일 (일)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와 불교신문은 9월28일 ‘화엄산림 선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오른쪽)과 불교신문 사장 현범스님(왼쪽).

영축총림 통도사와 불교신문은 9월28일 ‘화엄산림 선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오른쪽)과 불교신문 사장 현범스님(왼쪽).

대한불교조계종 설립
자비나눔 공익기부재단

dreaminus
아름다운동행

부처님의 자비손길을 세상에 전합니다

정기후원문의 : 02-737-9595